



한국의 미래를 제시하는 민간 국가전략 연구소 “세종연구소”

백 종 천 | 세종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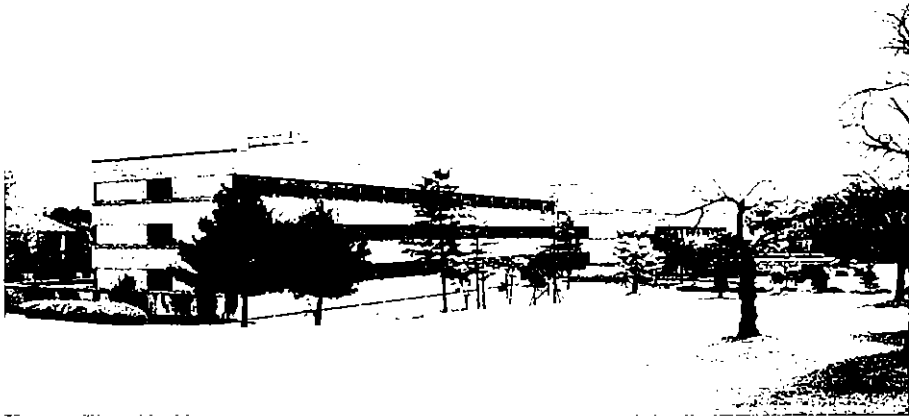
세종연구소는 서울 근교에 1만 6천여 평의 부지에 연구시설을 갖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연구자들의 집현전이다. 한마디로 말해 세종연구소는 외교·안보와 국제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대외정책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 기관이다. 한국의 정책관련 연구기관은 대개 정부 아니면 재벌기업 산하에 있기 마련이다. 이와는 달리, 세종연구소는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순수 민간 두뇌집단이다. 이 점에서 세종연구소는 한국에서 유일무이한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연구 풍토를 자랑하고 있다.

창립이념과 비전

세종연구소의 전신은 일해재단으로, 동 재단은 1983년 10월 미안나 랑군에서 있었던 비극적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탄생하였다. 수많은 정부 지도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테러사건은 한민족의 고통과 시련이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의 분단과 긴장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겨레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정·재계 지도급 인사들로 하여금 갖게 하였다. 세종연구소의 창립

이념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이념이 바탕이 되어 기금이 출연되었고 이에 따라 1986년 1월 18일 연구소가 개소되었다. 이후 세종연구소는 1996년 9월 '재단법인 세종재단' 부설 연구소로 재편되었다. 재단 이사장은 과거 덕망있는 전직 국무총리들이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전 서강대 교수이자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이었던 오기평 박사가 맡고 있다. 세종재단의 이사진들은 정계, 재계, 학계 등에서 대외정책에 식견이 높은 국내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탄생한 세종연구소는 한국의 평화, 번영, 통일이란 국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냉전 종식 이후 국제질서 재편기를 맞아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은 더욱 치열해졌다. 지난 9월 11일에 있었던 미국에 대한 테러사건이 21세기의 새로운 전쟁의 모습을 보이고, 이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가 테러를 반대하는 연대를 짜 나갈 때도 모두 자국의 국가 이익을 계산하기 마련이었다. 또한 이른바 정보화·세계화로 일컬어지는 기술·통신 체계의 혁신과 세계시장의 통합 움직임은 한국의 번영을 개방과 협력의 길에서 찾을수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길은 쉬운 것이



아니어서 우리는 국내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세계화는 배타적 지역주의와 병행되면서 전개되는 양상이어서, 우리의 과거 개방적 통상 정책은 이제 지역협력체로 중층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다.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날로 복잡해지는 국제정세는 우리의 냉철한 판단과 정책적 지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대북정책은 안보와 주변국 외교와 보다 복합적으로 맞물리게 되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시작된 남북한간 일련의 관계 개선 움직임은 남북한간 정치·군사·경제,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사회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입장과 외교전략도 변화하고 있다. 이렇듯 급변하는 남북한 관계 및 국제정치 환경은 우리에게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반도 문제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 및 우방국들과 협의하고 연대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세종연구소는 국내 민간연구소로서 명실공

히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민족이 처해 있는 국제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족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국가 외교·안보·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립·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활로를 모색하라는 세종의 사명이자 역할일 것이다.

연구 및 교육 사업과 지식공동체와 네트워크

세종연구소의 주요 사업은 국가전략의 연구, 지도자 교육, 국내의 지식공동체와의 네트워크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소내 21명의 상임연구위원으로 구성된 연구인력이 매진하는 연구 사업은 연구소의 주된 활동으로서 다음의 4개 실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한반도 안보정책을 다루는 '안보연구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남북한 관계연구실', 미·중·일·러 주변 4강에 대한 지역 연구 및 외교정책 연구를 병행하는 '지역연구실', 한국의 통상 문제 등 국제·정치·경제적 이슈를 분석하는 '국제정치경제연구실' 이 분야별로 전문화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주체가 되고 있다.

각 실이 생산해 내고 있는 연구물은 본 연구소의 연구 활동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낼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 안보연구실의 주요 업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체제』, 『한미군사협력의 장래』, 『신동아시아 안보 질서』, 『통일한국의 외교안보』, 『평화체제 구축 국제적 경험과 한반도』, 『한국 대외정책의 평가 및 발전방향』, 『21세기 동북아 평화증진과 북한』, 『2000년대 초 동북아 군비경쟁과 군비통제』 등의 정책연구 총서가 있다. 향후 안보연구실의 연구방향은 동북아 안보, 남북한 통일문제, 경제와 안보문제 의 관계, 한·미 군사협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군비통제 등 전통적인 안보 문제만이 아니라 포괄적인 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안보 문제로서 환경, 에너지, 과학기술, 정보화 문제와 안보와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안보연구실은 현재 "남북군사공동위 의제별 협상전략", "동북아 다차안보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남북화해시대의 주한미군"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중장기 외교 안보 전략 마련에 역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남북한관계연구실은 최근 『남북한 체제비교와 통합모델의 모색』, 『남북한 통일외교의 구조와 전략』, 『북한의 근로단체 연구』, 『민주주의와 정치제도 : 체제수행능력을 중심으로』, 『'북한문제'의 국제적 쟁점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김정일 시대의 당과 국가기구』, 『동아시아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등의 총서를 출판한 바 있다. 그 외에도 북한 체제의 현황 및 변화 전망, 주변 국가의 대북 정책 등과 관련한 다수의 정책과제 연구를 수행하면서

정부의 대북 정책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동 연구실은 현재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변 4강의 대북 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 방향"과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 개방 : 북한-중국, 북한-베트남 비교연구"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연구실에서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4개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주변 4강 1995년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정치적 이해"를 시작으로 매년 특정 주제를 가지고 주변 4강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다. 최근 출판된 공동 과제로는 『주변 4강 1997~1998 : 리더십 변화와 동북아 정책』, 『일본의 신정치경제』, 『Foreign Policy Making in Russia : An Analysis of Domestic Entanglements』, 『미국 정당과 외교정책』, 『정상외교와 한반도 : 주변 4강 1998~1999』, 『전환기 러시아의 대외정책 : 한·러 공동 국익증진의 모색』, 『미·중·일·러의 대북정책 : 주변 4강 2000』 등이 있다. 현재 수행 중인 공동 과제는 "동북아 환경 협력방안", "주변 4강, 2000~2001", "미국의 신행정부와 미중관계의 변화", "전환기의 한일관계 : 변화와 전망" 등이 있다.

국제정치경제연구실의 목표는 경제외교를 위한 정책관련 제안을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외정책을 위한 정책기조를 개발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국제정치경제연구실은 주변 강대국 및 전세계의 다른 무역 상대국들과 한국의 국제 관계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국제적인 이슈에 관한 연구를 추

진하고, 국제연합·WTO와 같은 국제조직의 분석, 주요 강대국들의 외교정책의 특성 연구, 국제 경제 조약 해석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있으며, 다른 특정 국가와 한국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의 외교통상적 마찰·이슈·문제에 관한 미시적인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실의 목표에 따라 최근 공동과제 “달러·유로·엔 : 국제통화질서의 재편”, “일본의 외교정책”을 완료하여 출판하였으며, 현재는 “동아시아 통화 협력 체제”, “한국과 일본의 금융개혁 비교 연구”, “일·미 관계와 한반도”,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협력의 정치경제”, “ASEM과 APEC의 비교연구”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연구소가 주력하는 사업의 하나는 교육 서비스의 제공이다. 세종연구소는 자체 연구인력을 교수진으로 하여 연구소의 훌륭한 시설을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제 7기 연수생을 배출한 ‘세종 세계화 연수과정’은 정부와 사회 각 분야의 실무책임자들에게 탈냉전 이후 세계 질서의 변화와 주요국의 대응 전략을 이해하게 하고,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에 관한 전문 지식과 식견을 고양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올해 2월에 시작되어 지난 12월 7일 수료식을 가진 제 7기 연수과정에는 서기관 부이사관급의 공무원과 처장급 이상의 정부투자기관 간부 등 총 35명이 참여하였다.

세종연구소는 국내외 학계, 연구기관, 외교가, 공익재단 등과 네트워크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국내외 저명인사와 연구자들을 초청, 강연 및 세미나를 다양하게 주최하고 있으며, 연구 사업을 보완하고 독창적인 전문연구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외부의 우수 전문인력을 연구 사업에 참여시키는 객원연구위원 제도 및 초빙학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종연구소는 해외 연구기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해 민간차원의 국제협력에도 크게 공헌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8년 11월 한미 양국정상이 합의하여 창설한 ‘민주주의포럼’ 사업을 미국의 민주주의재단과 함께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연구기관들과 다양한 국제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또한 국내 안보·통일·외교 정책 분야의 토론의 장인 ‘세종 국가전략 포럼’도 매해 개최해 오고 있다.

본 세종연구소는 또한 2002년 10월 하순에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 제 2차 세계민주주의포럼(World Forum on Democracy)의 국제 NGO회의를 조직하는 책무를 맡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의 주요 사업을 세종연구소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우수한 맨파워는 물론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세종연구소가 갖는 독립성과 창의성에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소의 역할과 발전계획

세종연구소는 그 동안 외교·안보·통일 정책 및 국제경제, 지역경제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통해 학계와 정부에 공헌해 왔다. 연구소가 매해 생산해 내는 연구물들은 장기적 정책 비전과 기초연구들을 공급하고 동시에 긴급한 시안에 대해 시의적절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의 축적은 『세종정책총서』, 『세종정책연구』, 『정책보고서』 등을 통해 출판되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소가 발행하는 계간 학술지 『국가전략』지는 학술진흥재단이 인정하는 수 개의 학술지의 하나로 명성을 쌓고 있으며, 월간 불러틴인 『정세와 정책』은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분석과 정책 대안을 통해 관계와 언론에 서비스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우리 세종연구소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장래의 몇 가지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첫째는 교육 사업을 확장하여 교육 서비스 기능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대학들과 협력하여 대학의 기능과 효율적 분업화를 통해 보다 다양한 수요자들에게 양질의 훈련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연구 역량의 제고이다. 우리 연구소는 물론 한국의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은 이제 시야를 보다 넓혀 아시아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문제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연구소로서는 이를 위해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해 가면서 연구의 차별화와 특화를 꾀할지 지혜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세종연구소와 대학 사회

세종연구소는 국내 주요 대학의 교수들은 물론 학생들과도 교류 협력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소 자료실은 통일·외교·안보·국제정치·국제경제·지역연구 등의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의 전문도서 및 참고도서, 학술잡지, 타 연구기관의 발간자료, 유관 학회지, 정부간행물, 국제기구 자료 등을 폭넓게 수집하여 자료가 부족한 국내 연구자들에게 일종의 정보 창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자료실에는 사회과학분야 4만 3천여 권의 장서 및 760여 종의 정기간행물, Micro Form 및 CD-ROM 자료 등이 소장되어 있으며, 정보검색실에서 소내에 구축된 LAN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장자료들을 검색한 다음, 개가식인 서가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둘째, 본 연구소는 교수와 연구자들이 연구소 활

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창의적 연구 활동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다. 매해 외부 연구자의 지혜를 빌려야 할 주제에 대해서는 공모기획과제를 통해 국내외 연구자들을 초청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안식년을 보내는 관련 분야의 교수들을 위해 객원연구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학자와 연구자들이 집필하는 우수한 논문의 출판을 활성화시키는 학술지 사업도 저희 연구소와 학계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대학생과 연구소와도 많은 인연을 맺고 있다. 개별 연구위원들이 자신의 연구조교를 유수 대학원의 학생들로 충원하는 조교제도는 장래 전문 연구직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들에게 유익한 훈련의 기회가 되고 있다. 대학원생이 연구소의 홍보나 편집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근무하는 인턴제도도 활성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상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세종연구소는 대학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연구기관과 대학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가까운 관계이다. 전문지식과 정보에 있어 앞서가는 연구기관이 대학에 대해 보다 실용적인 문제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론의 무장이 보다 철저하고 커리큘럼이 잘 짜여진 대학은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에게 자극을 주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보탬을 준다.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두뇌집단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공동체로서 교류와 연대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세종연구소는 이제 대학 사회와 더욱 협력할 것 약속하며 또한 세종연구소에 대한 대학 사회의 뜨거운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한다. **김원**